



Racial Ethnic & Women's Ministries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Facing Racism:

문화 간 사회를 꿈꾸며 *A Vis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ty*



반인종차별 학습 가이드 *Antiracism Study Guides*



반 인종차별 학습 가이드 Antiracism Study Guides

Week 1. 반 인종차별을 위한 성서적 명령 Biblical Imperative to Antiracism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성서는 반 인종차별을 위하여 일하도록 견고한 기초와 절대적인 명령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어도 4 개의 서로 다른 성서적 주제가 반 인종차별의 기초를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몇 개의 선택된 본문을 읽게 되겠지만, 이러한 주제들이 고립된 절수들로 갇혀있음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들은 성서적 증언 전체에 얽여있음을 보게 된다.

창조 Creation

본문: 창세기 1:1-31

또한 시편 1-4 편을 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교하고 놀라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별, 우주, 바다, 짐승, 나무, 그리고 식물들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잘 짜여 있다. 우리는 모두 창조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며 좋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삶의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 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었다. 만약 인류가 한 그룹을 다른 그룹 위에 올려놓던가, 혹은 잘못하여 특정의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치를 빼앗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서로 연결된 관계를 거부하고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강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본문: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인종차별에 대한 1999년 미국장로교회 정책 성명서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사랑 공동체의 비전*)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하여 인종차별의 거부함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인간들은 비록 서로 다를찌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므로 평등의 가치, 값, 존엄을 갖고 있다. 1999년 성명서는 우리를 인종차별이 없는 인류의 비전으로 부르고 있으며, 우리의 양도할 수 없는 가치, 존엄, 그리고 신성을 유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공동적 기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어떤 그룹도 온전한 인간으로서 거부됨은 잘못 된 것이요 기만인 것이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 *God loves diversity*

본문: 사도행전 10:9-23

하나님의 형상에 집중함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같다고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람 사이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귀중한 것이다. 성경은 창조의 다양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욥기 38-41을 보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사회 집단 또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수님이 만난 존경할만한 유대인 남자, 여자, 세리, 매춘부,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을 존중하셨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극히 중대한 결정을 기록하는데,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들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기던 때이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저하며 이방인들과 엮이길 꺼려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연속적인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를 극복하게 된다. 확신을 얻은 베드로는 다른 이들에게 말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34).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두 똑같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광대한 차이를 수용하는 방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차이점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안에서의 조화로 초청하신다. 오순절에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각 사람은 믿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자의 고유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 (사도행전 2:1-11). 하나님께서는 고유 언어들을 지워 버리시고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시지 않았다. 오히려 언어의 다양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종류와 다양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특정의 인간 집단에 가두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차이점들을 지우지 않으신다. 인종차별은 서로의 차이가 하나님의 풍성한 창조적 증거이기 보다는 부정적임을 전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Justice*

본문: 예레미야 9:23-24

우리에게 반 인종차별의 사역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성경 주제는 정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히브리 성경의 선지자들은 정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억눌린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연속적으로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기뻐”하신다고 전한다 (렘 9:24).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시사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찌어다” 그리고 “공의를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 찌로다” 라고 기록된다(아모스 5:15, 5:24).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가 6:8).

하나님께서 정의를 기뻐하신다. 인종차별은 조직적인 불평등으로서 기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일이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반 인종차별에 대한 네 가지 성서적 기초(창조, 하나님의 형상, 다양성, 그리고 정의)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제일 강하게 다가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2. 성경은 인종차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전하여졌는지 어떻게 듣고 보았습니까?
3. 성경을 인종차별로 해석함에 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하여야 합니까?

자료 Resources

Facing Racism: A Vision of the Intercultural Community. 222nd General Assembly (2016)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우리말 번역본(2016)이 있음.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racial-ethnic-and-womens-ministries/gender-and-racial-justice-ministries>

Jennings, Willie James. “A God Who Joins,” 15 April 2015, www.caldwellchapel.blogspot.com/2015/04/a-god-who-joins

Week 2.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의 방법 꿈꾸기 Envisioning a New Way of Life Together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정의와 다양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반영하는 세상을 만들기로 노력함에, 우리의 공동 소망을 일깨우는 공유 이미지를 보유함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두 개의 이미지는 사랑하는 공동체와 새로운 창조이다.

사랑하는 커뮤니티 Beloved Community

본문: 요한 일서 4:7-8; 또한 에베소서 2:19 을 보라

성경의 많은 절수들이 공동체 만들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의 1999년 정책 성명서는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공동체”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어디서 온 것일까? “사랑하는 커뮤니티”는 철학·신학자 조사리아 로이스 ^{Josiah Royce}가 처음 만들어 낸 신조어이다. 그러나 이는 마틴 루터 킹이 인권 운동을 통하여 대중화시킨 바 있다. 킹 박사에게는 아가페의 사랑—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밝혀진 사랑유형—이 사랑하는 공동체의 핵심이다. 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고전 10:24), 이는 “사람들이 소유한 소양 혹은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로 구분하는 차별함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Washington 2003, 19). 이것은 공동체의 비전으로서 “인종차별과 모든 차별의 양식, 편협한 신앙과 편견 등이 모두를 포괄하는 형제 자매의 영성으로 교체됨을 말한다” (The King Center 2014). 같은 기질로서 미국장로교회의 정책성명서는 사랑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확인시키고 있다, “모든 사람의 권리는 자유 함, 사물이 아닌 인간으로서 대접 받고, 또한 인간 사회의 온전한 멤버로서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사람들은 공동의 운명을 나누며 상호 연결되고 서로 함께 살며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1999, 3).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당신은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표현에 익숙합니까? 그렇다면 이 표현법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2. 이 비전에 가장 근접하게 해당되는 공동체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그 공동체에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룹의 다양성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우리 교회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한 발자국 다가서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본문: 이사야 65:17-25

함께 하는 삶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또 다른 길은 새로운 창조를 그리는 것이고, 또한 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린다. 20 세기 장로교 신학자인 레티 러셀 Letty Russell 은 창조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의 종말론적(별세) 비전으로 시작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서적 기록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무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는 미래의 펼쳐질 모습을 보게 된다. 이 새로운 창조의 “종말론적 미래”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하나님의 행동 및 약속으로 열린 예표 prefigured 된 삶의 목표 혹은 목적이다” (Russell 1979, 164). 새로운 창조의 이 비전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정의의 행동을 안내하고 용기를 안겨준다. 러셀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반듯이 “새로운 창조의 시각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심을 시작”하기를 말한다 (1979, 15). 미래를 시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정의와 환대를 지금 실천할 수 있다.

사랑하는 공동체와 새로운 창조, 이 두 가지 이미지는 더 함께하는 신실한 삶을 위한 우리의 소망에 골격을 만들어준다. 올바른 관계를 형성함에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 이 둘은 다른 점도 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이미지가 항상 미래의 비전임과 동시에, 이는 과거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 인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 을 말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관련사항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발전에 제동을 걸어주는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의 이미지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환경에 대한 예언적 관심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우리가 찾는 미래의 정의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몸짓일 뿐이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새로운 창조”에 대한 어떤 관련들 혹은 느낌들이 당신을 자극하고 있습니까?
2.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가 생태학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3. 새로운 창조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자료 Resources

Facing Racism: A Vision of the Beloved Community. 211th General Assembly (1999)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www.pcusa.org/site_media/media/uploads/resolutions/facing-racism.pdf
The King Center, “The King Philosophy: The Beloved Community,” 2014, www.thekingcenter.org/king-philosophy#sub4 (20 August 2015).
King, Jr., Martin Luther. *A Testament of Hope: The Essential Writings and Speeches of Martin Luther King, Jr.*, edited by James M. Washington. New York: HarperOne, 2003.
Russell, Letty M. *The Future of Partnership*,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79].

Week 3. 미국장로교회와 인종 화해 PC(USA) and Racial Reconciliation

본문: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많은 지역교회들이 독특한 미션 성명서를 개조하여 공동체에서 그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일차의 목표로 하는 예배와 봉사 사항을 분명하고 간단한 언어로 요약하고 있다. 이 성명서들은 주보, 뉴스레터, 팸플릿, 그리고 유인물에 실린 대로 회중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낭송되고 있다. 미션 성명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우리를 상기시키는 도움을 준다.

미국장로교회는 규례서에 기록된 미션 성명이 있는데 “교회의 선교”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섹션은 “교회의 큰 목적”을 열거하며 하나의 교단으로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간단한 성명을 하고 있다. 교회의 큰 목적은 다음과 같다: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거룩한 예배의 유지; 진리의 보존; 사회정의의 촉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규례서, F-1.0304).

‘교회의 큰 목적’은 유일하게 균형된 교회 미션 성명서이다. 이는 우리의 미션을 예배에 집중하고, 선포와 양육과 함께 다른 한 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존, 촉진, 및 나타냄을 분명히 하는 성명서이다. 이와 같이 선교에 대한 집중과 책임은 우리의 고백 그리고 우리 교회 정책 및 행동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지난 해 동안 미국장로교회는 사회 정의를 촉진시키며 교회로서의 중요한 선교적 부분을 감당하였고, 성공의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었다. 인종 정의는 사회 정의를 촉진시킨 여러 분야 중에 하나이다. 본 학습 가이드에서 우리는 최근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구조와 정책으로 진화된 증거들을 간단하게 재조사 할 것이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여러분의 교회는 미션 성명서를 갖고 있습니까? 재검토 하여보시고 여러분의 미션이 ‘교회의 큰 목적’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는지 조사하여 봅시다.

2. 미가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한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항들이 여러분의 미션 성명서에 이 양식과 명백하게 드러납니까?
3. 사회 정의를 알림에 교회가 성공적인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정의를 알리고 인식함에 성공적이지 못한 예를 들어보세요.

1967 년 신앙고백 The Confession of 1967

17 세기 중반에 영국 의회는 신앙과 예배에 관한 일에 대하여 안내를 제공하라고 몇 남성들로 구성된 그룹을 소집하였다. 그룹은 웨스트민스터 대 사원에 모여 몇 년에 걸쳐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1647 년 영국성공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여러 수정을 거쳐 여러 세대 장로교인들의 일차적인 신앙고백이 되었다.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특별히 영국 국교를 참조하는 내용들을 편집하였지만, 우리들은 이 나라에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필수 사항들을 전하는 독특한 성명서를 아직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교회는 1967 년에 신앙고백서를 발표함으로써 이 증언을 전하게 된 것이다, “1967 년 신앙고백의 목적은 오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고백과 선교에 있어서의 통일을 가지도록 부르심에 있다” (신앙고백서, 9.05). 과연 현대와 지속되는 지정학적 ^{geopolitical} 힘의 위협이 주는 도전들에 맞서 고백과 미션의 다이내믹한 성명의 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1967 년 신앙고백을 만드는 태스크가 대단히 어려웠기에 11 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중심적인 주제는 화해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및 인간과 인간 사이. 이는 주장하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 [화해의]역사는 하나님, 사람, 및 세상에 관한 모든 고백적 진술의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인간 상호간의 화해를 이루도록 부른다” (신앙고백서, 9.07). 신앙고백은 이 과제에 대한 도전을 인식하며 아주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느 때 어느 곳이나 특수한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가 행동하도록 부르신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공모자로서의 겸손을 가지며,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노력하고, 이러한 구체적 정황들 속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힘쓴다” (신앙고백서, 9.43). 인종과 인종 정의의 질문은 앞서 말한 구체적인 상황 중 하나이다.

1967 년 신앙고백의 인종과 인종 정의에 대한 성명은 교회의 첫 포괄적인 반 인종차별 정책을 이루었고 후에 세워질 정책 및 행동의 발전을 위한 뿌리를 내려 주었다. 신앙고백은 명백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인종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일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신앙고백서, 9.44). 이 화해에 대한 초점은 성서에 철저한 기초를 두었고

교회의 행동으로 확인되었으며, 교회의 반 인종차별 사역이 견고히 세워진 기초를 형성하여 주었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고백서에 대한 당신의 기억은 무엇이고 또한 교회에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1967 신앙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고백에 대한 회상은 무엇이고 교회에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3. 화해의 주제가 오늘 날에도 계속하여 적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의회와 인종 Council on Church and Race

정의를 실천하고, 친절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서적 필수 사항들은 무엇을 해서라도 이겨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 친절함을 습관적인 단점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겸손을 부적당한 양식으로 보는 세상을 향한 송고한 도전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이 이분법으로 양면화된 세상에서, 행동으로 옮기기 보다는 진부한 말로 때우기가 쉬운 일이다. 1967 년 신앙고백을 채택하며 미국장로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더욱 분명하여졌다.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실천에 옮김을 위하여 구조를 갖추어야 할 때이다.

논란의 여지가 휘몰아친 야만성의 시민 인권 연대에 직면하여 기독교 교회들은 응답함에 강요되었다. 교회로선 갈라진 의견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높은 윤리적 및 도덕적 기준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적 전통과 뿌리 깊게 차별적인 관례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오래 간직한 믿음과 해석을 내려 놓기란 어려운 일이다. 주류 개신교 교회 연합체인 NCC 는 이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종교와 인종 전권위원회를 만들었고 각 회원 교단들도 같은 일을 하도록 추진하였다. 이것은 장로교회(북 장로교 및 남 장로교)들의 유사조직이 된 교회와 인종 카운슬의 모체가 되어서 인종 정의 이슈에 대한 화해의 행동을 촉진시키었다. 이러한 “전권위원회” 및 “공의회”의 지명으로 교단들은 교회 지도자와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회와 공식을 제공한 것이다.

미국장로교회는 백인 다수의 교단으로서 숨겨진 인종 정의 이슈들의 진정한 규모를 이해함의 본질적 어려움을 깨달았다. 많은 교인들이 인종 문제를 인정함을 거부하여 왔으나 시민인권 운동 이후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른 교인들은 인종 정의를 유지함의 문제와 함께 백인 교회의 공모를 인식하고 있었다. 장로교회의 이슈는 그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느냐에 있었다. ‘교회와 인종’ 카운슬이

조직되어 “인종 및 문화 간 정의와 화해에 관련된 전체교회 정책을 발전시키고 이슈들을 확인함에 집중”하도록 하였다(북 장로교회 의록, 1972년 5월 23일, 747). 카운슬의 디자인과 목적은 영구적으로 다양함에 있었다. 이것은 사실상 이전에 목소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교단의 구조적 조정이었다. 카운슬은 이전에는 침묵을 묵과한 지역들에게 어려운 단어들을 던지었다.

다양성과 공평에 대한 헌신의 기운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1970년대에 교회와 인종 카운슬은 앤젤라 데이비스 Angela Davis 변호기금으로 \$10,000을 허락하였다. 앤젤라 데이비스 박사는 UCLA 대학교의 흑인 교수였다. 그녀는 정치 운동가로서 1960년대 및 70년대 논쟁의 흑인 활동그룹에 속하였었다. 데이비스 박사는 4명의 사상자를 낸 검은 팬더당 Black Panther 의 캘리포니아 카운티 법정 무력인수에 가담한 음모로 구속되었다. 앤젤라 데이비스 사건은 교단 안에 사회적 반대의 소용돌이로 몰아쳤다. 많은 사람들이 앤젤라 데이비스는 전통적 미국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상이라고 보았기에, 교회가 그녀의 변호를 지원하고 그녀를 동정함에 분노를 표출하였다. 그들은 카운슬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총회에 청원하였다.

이 일의 응답으로 카운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총회는 교회와 인종 카운슬을 임명 함으로서 장로교인들에게 보통 미국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넘는 사회 정의와 세계평화로의 투쟁에 더 급진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이는 극단적인 부정 속에서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으로 실천하는 자들을 후원하라고 장로교인들을 부르는 것으로서 국제적 관계에서 평화를 증거하도록 부르고, 또한 ‘개인의 삶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실천,’ (신앙고백서, 9.45)을 통하여 전통적인 의를 깨고 도덕적 자기 만족 및 극단적 우월주의 속에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게 교회의 목소리를 다음과 같이 외치도록 부르신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회의록, 1972년 5월 24일, 994).

우려하는 장로교인들에 의하여 법정 변호기금은 총회에 조용히 상환되었고 이후의 그랜트와 기금에 대한 고려사항은 뒤따르는 총회에서 허락되었다. 어쨌든, 그랜트 결과는 지속되었다.

1983년 미국장로교회의 연합으로 ‘교회와 인종 카운슬’은 공식으로 해체되었다. 오늘날 카운슬의 사역은 ACREC 과 민중 인종부 및 여성 사역부로 이어져 계속되며, 다른 프로그램 직원 및 교단의 기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카운슬의 영적 유산은 이들의 목표와 목적을 지원하며 대변함을 계속하는 교회의 사람들을 통하여 존재하고 있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 중에 분열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중 인종과 인종 정의에 관계된 공통점들은 무엇입니까?

2. 기독교 가치관을 대변함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선을 긋는다면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3. 당신은 기독교 원칙과 가치를 위하여 입장을 정하도록 요구된 적이 있습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료 Resources

“Race and the Rights of Minorities in America ACSWP,” *Presbyterian Social Witness Policy Compilation*, 2010,
[www.index.pcusa.org/NXT/gateway.dll/socialpolicy/1?fn=default.htm\\$fn=templates\\$vid=pcdocs:10.1048/Enu](http://www.index.pcusa.org/NXT/gateway.dll/socialpolicy/1?fn=default.htm$fn=templates$vid=pcdocs:10.1048/Enu) (20 August 2015).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1: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K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07.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2: Book of Order. Louisville, K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13.

Week 4. 인종차별 개론 Racism 101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인종의 부당함을 대화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분명하지 않은 용어에 있다. “인종 차별” 및 “인종 차별 주의자”와 같은 용어들은 흔한 말투에서 매우 느슨하게 사용된다. 이것은 많은 혼란, 방어적 자세, 그리고 원하지 않은 공격들을 만들어 준다. 좀 더 쉽고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기 위하여서는 공유할 수 있는 정의로 시작 하여야겠다.

인종 Race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피부 색깔, 모습, 크기, 및 몸의 유형이 있다. 이것은 항상 그래왔다. 그러나 인종에 대한 개념이 세워진 것은 서양의 식민지 시대가 도래 하면서부터이다. 유럽 식민 지배자들이 새 대륙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부족, 가족, 종교 그룹, 혹은 지리적 지역 및 그 땅의 현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들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미묘함을 이해하지 못하였었다. 식민지 개척자들은 일괄 처리로 온 대륙의 모든 사람들을 피부 색깔에 따라 마치 표지판처럼 하나의 새로운 항목으로 묶어 버렸다. 이렇게 인종은 생겨난 것이다.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겨난 범주이다. 또한 피부 색깔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낸 침략자들의 수고는 중립적인 관찰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는 침략자의 경제적 및 물리적 관심이 그들이 만난 독특한 문화를 무시하며 만든 것이다. 그룹의 자기 식별은 지워지고 모든 사람의 이름과 정체성은 침략자의 몫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유럽 침략자들이 도착하기 이전의 미 대륙은 각 교유의 언어와 전통으로 구성된 여러 독특한 그룹들로 인구가 조성되어 있었다. 식민지화 후에는 이 거대하고도 넓은 땅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사회는 모두 인디언이라고 일축되어 불리어진다—이 이름은 그들 자신의 관점이기 보다는 침략자들의 (잘못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비슷하게도, 대서양을 건너는 노예 무역에서, 엄청난 아프리카 대륙의 넓고도 다양한 문화 속의 사람들이 유괴되어 낯선 땅에 끌려왔을 때, 모든 이를 하나로 묶어서 흑인 ^{Negroes} 이라고 일괄 처리 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바뀔지언정—우리는 이제 본토 미국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말한다—수 백 년 전부터 내려온 유럽 침략자들의 이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인종적 분류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다.

이 시간 이전에는 모든 검은 피부 색깔의 사람들을 하나의 분류로 간단히 묶어서 지칭함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분류적 시스템은 유럽 침략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압함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이 시간 대에 발명 된 여러 가지의 인종적 분류(인종 혹은 피부색깔)는 유럽(백인)인을 최 상위에 올려놓은 계급제도를 만들었다. 이 분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되며 이제는 규칙도 없이 서로 다른 아시아계 인종 그룹들을 흑백 논리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 결정으로서 누가 백인으로 고려되고 누구는 백인이 아니라고 정의한 사건들이 몇

있다. 예를 들어 1923 년 미국 v. Bhagat Singh Thind 사건은 인도 사람의 백인 Caucasian 은 백인 white 에 포함되지 않는다(혹은 Caucasian 에 대한 “공통적 이해”와 맞지 않음)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인종적 분류 시스템이 백인 우월주의라고 일컫는다.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

개인의 생각으로 백인 우월주의가 이상적이라고 믿을 수는 있어도, 백인 우월주의라는 용어는 진실로 시스템과 그 효과를 가리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제, 사회, 그리고 법률 시스템은 백인들만이 평범한 시민이라는 가정(말로 표현 혹은 묵인)하에 그들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다.

하나의 유형을 생각한다. 켄터키주의 루이빌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여 계획된 도시이다. 이는 자동차-중심, 자동차-지배, 그리고 자동차-정체성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공중 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지 않았다. 우리에게겐 제한된 스케줄에 제한된 경로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 지하철이 없다. 많은 지역에 보행도로가 없다. 자전거 길은 공원에만 있지 직장에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게 되면 도로 위의 자동차 옆 좁은 공간을 질주하여야만 한다. 은행 계좌를 열기 위함을 포함하여 자동차와 관계 없는 여러 가지 일에도 운전면허증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다른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 관리소 (DMV)에 찾아 가야만 해결이 된다. 루이빌의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일상의 어려움을 안겨준다. 직장에 가는 시간이 더 걸리고, 의사나 치과에 가는 것이 어려우며, 등 등이다. 백인 우월주의는 이와 같다. 이는 미국의 구조적 특징으로서 백인-중심, 백인-지배, 그리고 백인-정체성을 말한다 (Doucot 2010, 또한 Johnson 1997 을 보라). 이 나라에 백인 우월주의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부터 불행한 사실이었다. 과연 인종 관련(흑인) 노예가 이 나라 성장 발전에 지배적인 경제요소가 되었을 때부터, 백인 우월주의는 문화에 더 본질적인 모습으로 변하였다. 역사는 실제화를 위하여 왜곡되고, 법률은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화 되고, 합리성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점차적으로 혜택, 서비스, 그리고 기회는 백인들의 소유로 가정되었다. 자유, 시민권, 교육, 투표의 권리, 그리고 기타 등등은 백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주 천천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들에 대한 도전과 함께 몇 사항은 수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모습이다. 유형적으로 볼 때에, 루이빌 모든 곳에 보행도로를 설치함은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도심의 기본적인 서비스는 넓게 의미에서 볼 때에 걷는 것 보다는 자동차를 소유함이 더 쉬운 것과 같다.

인종 차별 Racism

인종차별은 백인 우월주의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한 용어이다. 이는 조직적이며 구조적임을 가리키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백인-중심, 백인-지배, 그리고 백인-정체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지속되는 구조로서 다른 인종 그룹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백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인종차별은 우리 문화와 사회의 거의 모든 방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긍정적 혹은 부정적,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매일 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종차별의 정의는 조직적이며 구조적이다. 개인에게 해당되거나 개인 감정 혹은 태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낫다고 믿으며, 다른 인종 그룹에게 나쁜 감정을 표출하고, 또한 인종 편견의 렌즈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개인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편견을 가진 고집불통 자들이다.

물론, 편협한 신앙과 편견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기여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의 틀을 개인의 태도로 규정하는 경향도 마찬가지로이다. 개인에게 집중하는 감정들은 백인들에게는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불이익인 경제, 법률, 그리고 사회적 구성을 인지하고 직면함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는 또한 더 큰 구조들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우리들을 너무 쉽게 방면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다시 자동차 유형으로 돌아가서, 만약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직시하고 걷기, 자전거 타기, 혹은 버스 타기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루이빌의 자동차 중심 구조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두 사람이 인종적 편견 혹은 편협 자들을 묵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백인 중심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우리 사회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 정의는 “역 차별주의” 혹은 다른 인종 간의 인종차별을 배제하고 있다. 흑인들이 백인들을 대상으로 편견을 쌓고 있을 때, 혹은 라틴계가 동양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편협적인 주장을 펼칠 때, 이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구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흑인들에게 백인을 혹은 라틴계에게 동양계 미국인을 낮춤으로 얻는 힘이나 혜택을 안겨주는 구조는 미국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이란 권력의 구조적 위계질서 중 하나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차별은 우리의 문화가 남성 중심, 남성 지배, 그리고 남성 정체성으로 되어짐을 가리킨다 (Johnson 1997). 역사적으로, 미국의 경제, 교육, 법률, 그리고 사회적 구조는 남성을 위하여 세워졌다. 이러한 구조의 지속되는 효과는 여성과 트랜스젠더를 발판으로 남성에게 이익을 안겨 주며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주의, 그리고 서로 다른 다양한 구조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겹치고 있다. “교차점 ^{intersectionality}”이란 용어가 이것을 설명함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한 흑인 여성에게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교차하는 공간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한다. 인종차별이 그녀에게 안겨주는 불이익이 성차별의 구조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영향을 주는 모습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은 하나님과 인류에 대항하는 죄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개혁 신학에서 원죄(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발견된 상태)와 실제 죄(세상에 살면서 원죄를 구체화하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깨어 놓는 실제적인 모습)를 언급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종차별은 미국의 원죄이다. 오늘날 살아있는 그 어느 누구도 백인 우월주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없다. 우리에게 이 시스템을 만듦에 대한 책임 혹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함께하여야 함을 위반한 타락한 상태의 한 모습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거주함이 깨어짐을 고백한다. 바로 그 곳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한 고백한다. 인종차별의 광활한 문화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편견과 편협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스며 든 상태이다. 백인들에게는 죄의 시스템에서 받은 혜택을 누리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시험이 된다. 우리 또한 함께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실제 죄들을 우리는 또한 고백한다. 모든 고백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확신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힘을 실어주시고 계신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여러분의 삶에서 인종차별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룹의 각 사람이 발표함의 편안함을 느낄 때에 본인의 경험을 나누도록 초청합니다. *(리더용: 이 사항은 각 개인이 과거에서 받은 상처 및 아픔과 관계된 것이기에 예민한 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 여러분의 관찰 및/혹 경험을 통하여, 사회와 교회에서의 인종차별 이슈들을 어떻게 교회가 다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새로운 창조물인 사랑의 커뮤니티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장애와 구조물들을 제거하여야 할까요?
4. 만약 여러분의 교회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의 친구 혹은 누군가가 인종을 차별하는 내용 혹은 농담하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이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5. 우리사회와 교회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우리교회가 취할 수 있는 작은 스텝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료 Resources

The Racism Study Pack. Louisville, KY: The Thoughtful Christian, 2009.
 Johnson, Allan G. *The Gender Knot: Unraveling Our Patriarchal Legacy*.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7.
 Doucot, Christopher. *Race, Class, and Gender*. Course taught at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2010.

Week 5. 미국 안에서의 인종차별적 유산 견디기 Enduring Legacy of Racism in the US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시민 인권 운동의 결과로 인종적 평등의 중요한 진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미국 안에서의 인종차별적 유산은 계속 되었고, 많은 경우에 지난 십 여 년 동안 더 나빠진 모습이기도 하다. 백인들에게 권한을 주고 유색인종을 압박한 몇 역사적 사회 구조는 시간 속에서 약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다른 모습들은 멈추기도 어렵거니와 인식하기조차 힘든 상태이다.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가장 힘든 과제 중 하나는 부정의 얼굴을 바로 마주하여 당당하게 바라봄이다. 비록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새로운 창조물인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로서 필요한 것은 미국 안에 현존하는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인정하는 일이다.

경제 Economics

재산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하여질 수 있는 사실과 같이 우리 조상의 경제적 상황은 우리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큰 부자들에게는 더 명백한 일이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은 경제적 안정도 미래 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다.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동차 수리와 같이 갑작스런 비용을 도울 수 있다면, 일자리를 지키거나 잃는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가 첫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을 낼 때 주택 소유권은 미국에 대한 투자의 주요 형태이기에 이는 평생에 걸친 영향을 미친다. 이 뜻은 본토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동양계 미국인 및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진 경제적 잘못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미국의 인종차별로 인하여 엄청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를 인종적 부의 격차라고도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63년에 백인가정의 평균 재산은 백인이 아닌 가정의 평균 재산보다 117,000 달러가 많았다. 2015년에 백인 가정의 평균 재산은 흑인과 히스파닉 가족보다 50만 달러가 높다(Urban Institute 2015). 우리가 중앙값 ^{median} 보다는 평균값 ^{average} 을 보면, 문제는 계속된다. 2013년 백인 가구의 중앙값은 흑인 가구의 13배, 히스파닉 가구의 10배에 달했다(Kochhar and Fry 2014).

교육 Education

대법원은 1954년에 인종 분리를 금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로 남부에 있는 많은 커뮤니티들이 초기 통합에 저항했다. 그러나 “1972년 강력한 연방 집행으로 인해 남부 흑인 학생의 약 25%만이” 인종간 분리된 학교에 출석하여 “적어도 10명 중 9명이 인종적 소수 민족이었다” (Hannah-Jones 2014). 그러나 1990년대 대법원은 인종 차별 철폐에 대한 노력을 크게 줄였고 인종 분리는

증가하였다. 오늘날 라틴계의 43 퍼센트와 흑인 학생들의 38 퍼센트가 ‘집중적으로 분리된 학교’에 다니고 있다(Zalan 2014). 2014 년 보고서는 “라틴계 학생들은 1960 년대 후반에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래 매년 더 많은 수가 분리되어 왔다” (ibid.). 그러한 분리는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시민 인권 위원회 교육국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 소수자가 백인 학생보다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고급 수학 및 과학 수업을 받지 못하고, 초보 경험의 저임금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경향이 더 높게 있음이 밝혀졌다” (Rich 2014).

치안 Policing

2014 년 8 월 9 일 미주리 주 퍼거슨 Ferguson 에서 마이클 브라운 Michael Brown 이 살해 된 후, 흑인 생명의 중요성 Black Lives Matter 운동은 경찰이 다양한 인종 및 민족 집단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인종 프로파일링의 현실—특정 그룹이 인종만으로 범죄 활동이 의심 될 때—은 1990 년대에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전국의 커뮤니티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가 경찰에 의해 무작위로 멈춤을 당하고 추궁 당하는 결과로 인하여 "멈춤-그리고-수색"또는 "깨진-창문"정책을 제정하였다. 아랍계 미국인의 인종 프로파일링은 2001 년 9 월 11 일 이후부터 증가했다. 유색인종들은 무작위로 교통위반 검문, 수색, 및 체포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범죄를 줄임에 비생산적임이 증명되었으며 지역 사회 구성원과 경찰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Badger 2014).

경찰의 비행, 과도한 무력, 및 경찰의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 등은 또한 불균형적으로 유색인들에게 집중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아직 이러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추정치는 2014 년에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 된 사람의 수를 1,149 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2015 년 "계산").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사람들은 백인보다 경찰의 손에 폭력을 경험할 확률이 훨씬 높다. 본토 미국인은 다른 어떤 인종 그룹보다 높은 비율로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사망한다 (Vicens 2015).

대량 투옥 Mass Incarceration

1980 년대와 1990 년대는 "엄격한 범죄" 정치로 바뀌어 가혹한 최소한의 형량, "삼진이면 퇴출"법, 그리고 마약 퇴치(ACLU)와 같은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에서 감금 된 사람들의 수를 증가 시켰다. 영리 목적의 구금 시설 개발을 포함하여 사법 제도의 사유화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창출함으로써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 % 밖에 살지 않는 반면, 우리는 세계 죄수의 25%를 수용하고 있다 (ibid.).

대량 투옥의 피해는 주로 유색인종들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백인과 흑인이 비슷한 비율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백인보다 10 배 더 많은 약물 사건으로 투옥된다"(ibid.). 감금 비율의 이러한 불균형한 결과는 엄청나다. "투옥은 직업 시장에서 당신을 밀어 낸다. 투옥은 후드 스탬프로 가족을 먹일 자격을 박탈한다. 투옥은 범죄 배경 조사에 근거한 주택 차별을 허용한다. 투옥은 노숙자가 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투옥은 다시 투옥 될 확률을 높인다"(Coates 2015). 많은 주정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석방 된 후 투표를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인종 차별적 구금은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다. 대량 감금은 미국에서 인종 불평등을 지속 시켰고 인종 정의를 향한 움직임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ibid.).

이민자는 종종 구금 시설과 달리 센터에 "억류"된다. 1996 년의 테러 방지 및 효과적인 사형 선고 법 (AEDPA) 및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권리 법 (IIRAIRA)을 포함한 여러 법률에 따라 허가 받지 않은 이민자의 사소한 범죄에 대한 장기간의 억류가 장려되었다. 미국은 현재 "서류 미비 이민자,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 망명자"로 가득 찬 "세계 최대의 이민 구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Global Detention Project 2009). 대부분이 민영화되어 이익을 꾀하는 미국 구금 시설은 인권 유린과 부적절한 보살핌으로 널리 비판을 받아 오고 있다.

이민 Immigration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이민은 인종 차별적인 문제였다. 미국 역사의 다른 시점에서 이민 정책은 특정 인종 그룹의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특정 민족 출신의 사람들을 장려하는데 사용되었다. 1965 년 출입국 관리법 (Immigration Act)이 가장 제한적이고 인종적으로 가장 엄격한 이민 정책을 없애었지만 미국으로의 입국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며 출신 국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고도로 숙련 된 인력과 미국 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선호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자국 내에서 교육 수준이 높고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들의 이민이 미국으로 건너온 이전 이민세대와는 다르다는 뚜렷한 구분을 만들어 준 셈이다.

국가에 입국하기 위한 대기 시간은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멕시코, 인도, 필리핀 출신의 형제 자매로서 가족 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은 20 년 이상의 대기 시간이 있다. 44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 출신의 사람들은 훨씬 짧은 대기 시간을 경험한다 (VISANOW, Inc. 2015).

라틴 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에게 미국 입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 이민 정책과 과정은 합법적인 이민을 통해 경제 상승기에 저임금 노동 수요를 채울 여지가 거의 없다. 저임금 일자리의 수요 (그리고 미국 육류 포장 및 가공 회사와 미국 기반의 농업들이 국경의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일)는 많은 경우 적절한 허가증이 없는 이주민들의 흐름을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 건설로 불법 체류자들은 사막을 통해 더 길고 위험한 길을 사용하게 된다. 남부 아시아 출신의 이주자들은 라틴 아메리카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 한다.

이민 관련 언어는 매우 부끄럽고 인종 차별적이어서 특정 인종 그룹 (특히 히스패닉 / 라틴계 / 라틴계 및 아시아계)의 사람들은 법 집행 기관 및 이민 집행 기관에 의하여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했는지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서류 미비 된 것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민자 집단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문화 편향, 규정 및 이민자 주변의 변화하는 법률과 서비스 및 주택에 접근하는 이민자의 권리로 인해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특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자)은 중요한 공헌자가 아니라 미국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이 정보 중 어느 것이 당신을 놀라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인종 차별의 유산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3. 인종 차별은 사업, 교육 및 치안을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4. 우리 공동체에서 대규모 투옥과 이민의 현실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5.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영역 중 하나에서 정의를 향한 작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자료 Resources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Mass Incarceration," <https://www.aclu.org/issues/mass-incarceration> (23 September 2015).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https://en.wikipedia.org/wiki/Antiterrorism_and_Effective_Death_Penalty_Act_of_1996 (20 August 2015).

Badger, Emily, "The Long Halting Still Unfinished Fight to End Racial Profiling in America," <http://www.washingtonpost.com/news/wonkblog/wp/2014/12/05/the-long-halting-still-unfinished-fight-to-end-racial-profiling-in-america> (23 September 2015).

Coates, Ta-Nehisi, "The Black Family in the Age of Mass Incarceration," *The Atlantic*, October 2015,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5/10/the-black-family-in-the-age-of-mass-incarceration/403246/> (15 October 2015).

Global Detention Project, "United States Detention Profile," March 2009, <http://www.globaldetentionproject.org/countries/americas/united-states/introduction.html> (20 August 2015).

Hannah-Jones, Nikole, "Segregation Now..." *The Atlantic*, May 2014, <http://www.theatlantic.com/magazine/archive/2014/05/segregation-now/359813/> (20 August 2015).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https://en.wikipedia.org/wiki/Illegal_Immigration_Reform_and_Immigrant_Responsibility_Act_of_1996 (20 August 2015).

Kochhar, Rakesh and Richard Fry, “Wealth inequality has widened along racial, ethnic lines since end of Great Recession,” 12 December 2014,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4/12/12/racial-wealth-gaps-great-recession/> (20 August 2015).

Rich, Motoko, “School Data Finds Pattern of Inequality Along Racial Lines,” *The New York Times*, 21 March 2014, http://www.nytimes.com/2014/03/21/us/school-data-finds-pattern-of-inequality-along-racial-lines.html?_r=0 (20 August 2015).

“The Counted” <http://www.theguardian.com/us-news/ng-interactive/2015/jun/01/the-counted-police-killings-us-database#> (20 August 2015).

Urban Institute, “Nine Charts About Wealth Inequality in America,” 2005, <http://datatools.urban.org/Features/wealth-inequality-charts/> (20 August 2015).

Vicens, AJ, “Native Americans Get Shot By Cops at an Astonishing Rate,” *Mother Jones*, 15 July 2015, <http://www.motherjones.com/politics/2015/07/native-americans-getting-shot-police> (20 August 2015).

VISANOW, Inc., “U.S. visa wait times: Who waits and for how long?” 2015 <http://www.visanow.com/u-s-visa-wait-times-whos-waiting-and-for-how-long/> (20 August 2015).

Zalan, Kira, “The New Separate and Unequal,” *U.S. News & World Report*, 16 May 2014, <http://www.usnews.com/news/articles/2014/05/16/brown-v-board-of-educations-60th-anniversary-stirs-history-reality> (20 August 2015).

Week 6. 신앙 공동체로서의 응답 Responding as a Community of Faith

본문: 마가복음 7: 27-28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아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시작하면서 Introduction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숭배, 신뢰, 그리고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일치와 친교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예수님의 압제와 죽음에 대한 승리는 은혜와 고백과 회개를 통하여 일치에 대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1999년 PCUSA 정책 성명인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Facing Racism}"는 캐서린 미크스 ^{Catherine Meeks}의 말을 인용하여 인종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다. "백인과 흑인이 통일된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예배 스타일의 다양성 보다는 과거에 받아 들여지지 않았음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자신들의 힘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백인들과 어린이로 취급됨을 거부하는 흑인들에게 있다"(15 쪽).

위에 인용된 마가 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게 수로보니게 여성이 그녀의 귀신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며 그녀의 요청이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힘을 열심히 믿고 있다. 그녀는 귀신의 영으로부터 그녀의 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우선적인 책임은 유대인을 구원함에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는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부함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누그러지시며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는다.

이 구절이 우리의 주의를 사로 잡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용된 선동적인 언어 때문이다. 이름을 부름은 편협한 자들이나 패권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상기시킨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 사역에 대한 부름을 이해하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를 믿고 은혜를 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확장된 부름을 감사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편파성으로 보시고 계시는가? 확실히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정신을 주신다. 아무리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며 아무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단합을 무한정 거부할 만큼 강하며, 아무리 보급적이거나 사기성이건 간에 이 유대를 영구적으로 근절시킬 힘은 없다.

명백한 끈기와 인종 차별의 유산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우리가 도전에 직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면 현재의 현실을 바꾸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일치와 친교의 모습을 얻을 수 있지만 일과 끈기가 필요하다. 은혜는 하나님의 공헌이지만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다. 이러한 책임에는 우리 존재의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고백과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포함된다. 실제로, 희망은 풍성하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통일성과 다양성은 반대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입니다. 화합과 다양성이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2.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귀하의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공유함의 더딘 모습이 있습니까?

은혜/Grace

"성령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우리를 묶습니다"(신앙 고백서 2007). 장로교인들은 스스로를 진리와 신실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에큐메니칼한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 회원이다. 정의에 대한 우리의 추구에는 한계나 경계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모든 것에 자유롭고 범위와 관할권이 무한하다.

인종주의와 인종 정의의 문제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종주의는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에서 입증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맥락에서 인종 차별을 명백히 지지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정의와 일치를 주장한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장로교는 개혁 교회 세계 연합 (WARC, 장로교회 및 회중교회), 세계 교회 협의회(WCC), 그리고 전국 교회 협의회(NCC)가 주도하는 에큐메니칼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남아공에서의 인종차별 해체를 돕는데 적극적이고 효과적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이 단체들은 남아프리카 인종 차별적인 정책과 제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그 국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구조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에 따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크게 분열된 기독교 교회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다고 깨달았다. 1982 년 세계 개혁 교회 연합은 남아공 아파타이드를 죄와 신학적 이단으로 선언했다.

1985 년에 주로 흑인 남아프리카 신학자들 중심의 그룹이 아파타이드의 악덕 정책, 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공모,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에 도전하는 카이로스 문서를 만들었다. 카이로스 문서는 하나님 자유의 은혜에 대한 인정에 뿌리를 둔 기독교 단결은 모든 인종 차별적 정책과 관행에 대한 거부를 요구한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문서가 시작하는 챕터 "진리의 순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침범한 인종적 난류와 교회의 분단된 상태를 요약하고 있다. "압제자와 억압받는 사람은 모두 한 교회에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같은 빵을 떼어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기독교 경찰과 군인들이 폭행으로 기독교 자녀들을 죽이거나 혹은 기독교 포로를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면에, 다른 기독교인들은 함께 서서 평화를 미약하게나마 주장합니다. 교회는 분열되었고 심판의 날이 다가 왔습니다"(Kairos Document 1985). 그 문서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하도록 도전했다. "성령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우리를 묶습니다."

일치는 남아공 아파타이드의 맥락에서 쓰여진 또 다른 문서의 핵심 주제로서,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새로이 추가된 벨하^{Belhar} 신앙고백서이다. 1982년에 쓰여진 벨하 신앙 고백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은사이자 의무"라는 정의를 위하여 분리와 투쟁을 거부하도록 권고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것의 구속력을 지니면서 동시에 진지하게 추구되고 촉구되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Belhar, 1986).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광대한 다양성의 세계 속에서 그러한 일치와 단일성을 창조합니까?
2. 교회의 분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고백 Confession

고백이라는 용어는 기독교 신학에서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 서로에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계를 깨고 좋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법에 대해 진리를 말한다. 자주 인용되는 "고백은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실패와 단점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치료적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상처를 주거나 가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 할 수 없다.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공동 신앙성명이다. 미국 장로교 규례서는 신앙 고백의 목적을 교회가 신앙을 진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서 교회는 멤버들과 세상에 누가 및 무엇이며,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지 선언한다. 이 성명서는 교회가 그 신념과 행동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나타낸다"(Book of Order, F2.01).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의미의 고백인 신앙 성명은 우리가 우리의 공모심 및 불충실함을 인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궤도를 벗어 났음을 첫 번째 의미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가지 형태의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힘을 상기시켜 준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에 대해 정직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와 희망과 신앙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고백에서 우리의 희망을 설명 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에 직면하여: 사랑하는 공동체의 비전"은 1967 년 신앙고백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을 한다. 이 놀라운 성명서는 교회의 화해사역을 위한 기초역할을 한다. 민권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는 1967 년 신앙고백에서 교회는 "(하나님) 화해의 사랑으로서 (하나님) 형제들 (자매들)간의 장벽들을 극복하며, 사실이거나 상상이거나 민족적 또는 인종적 차이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깨뜨려 버리신다. 교회는 만민을 이끌어 생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붙들어 주도록 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즉 고용, 주거, 교육, 여가, 결혼, 가정, 교회, 정치적 권리행사 등에서 그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인종 차별의 폐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해를 받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신앙고백서, 9.44).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노회를 통해 벨하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고백서에 추가 할 것을 결의했을 때,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에서 고백의 행위였다.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는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우리의 공모심을 인정하고 인종 차별 철폐는 교회와 모든 크리스천의 책임 중 하나라는 공동체적인 신념을 확인한다. 교회의 참된 일치는 이것에 달려 있다. 노회에서 벨하^{Belhar}의 승인을 발표하면서 미국장로교의 공 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샬롬 정신과 온전함에 대한 열망으로 교회는 우리 교단의 삶에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관련된 고백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으로서 부지런히 그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단이 역사적으로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인종차별에 기여한 방식을 고백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애도한다. 우리는 이 시간과 장소에 허락된 이 고백이 화해와 정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역과 사명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완전하게 따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노회 승인의 Belhar 신앙고백," 2015 년 4 월 23 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왜 고백은 치료법입니까?
2. 고백 없이 화해가 가능합니까?

3.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4. 우리 교회는 인종차별의 죄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5. 신앙 고백서에 포함 된 다른 신조/고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백한 신앙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개 Repentance

고백은 인정이고, 회개는 변화이다. 회개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으로 뭔가를 이해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로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회개는 새로운 현실을 사는 선물이자 과제이다.

인종차별은 죄이다. 죄를 정의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을 소원함 *estrangement* 혹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인종 차별주의의 분열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다. 진실은 인종 차별주의가 신화 및 법에서 종종 은폐되어 그 존재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희생자와 억압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에 민감하고 적절한 경우 회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 왜 세리 및 죄인과 관련을 하시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하신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누가 복음 5: 31). 회개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행위로서, 오늘날 교회의 지속적인 책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근거가 있는 공동체로서 추구하는 일치는 우리의 회개 능력에 달려 있다.

토론 질문 Discussion Questions

1. 회개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사회의 모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2. 우리 교회가 인종 차별을 회개하고 새로운 창조물로 살 수 있는 작은 단계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의 교회는 반 인종차별주의 교육을 제공합니까?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료 References

“Confession of Belhar approved by presbyteries,” *Presbyterian News Service*, 23 April 2015 <http://www.pcusa.org/news/2015/4/23/confession-belhar-approved-presbyteries/> (20 August 2015).
Facing Racism: A Vision of the Beloved Community, 211th General Assembly (1999)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Kairos Document, 1985, <https://kairossouthernafrica.wordpress.com/2011/05/08/the-south-africa-kairos-document-1985/> (20 August 2015).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art 1: Book of Confessions. Louisville, K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2014.

